



# Russia

블라디보스토크지사

##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시장 기우뚱!

### 국경폐쇄 등 강력대응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극동부터 시베리아 지역까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연간 1,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국가인데,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교역이 단절되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농산물 교역 분야에 끼치는 여파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경을 폐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에 의존하던 극동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일시적으로 국경통관을 재개하고는 있으나, 중국인의 입국금지 등 일련의 강화된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러시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2명(중부지역 / 중국인 국적 / 현재 완치)

### 품질은 저하되고 가격은 상승

극동지역의 경우 열악한 생산 환경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일찍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극동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68,121톤의 중국산 과채류가 수입되었다.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과채류는 14,590톤으로 전년 동기 20,184톤 대비 28%

감소한 상황이며, 1월 말부터 교역 중단 조치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2월에는 수입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감소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어려움은 여러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극동의 대표 하이퍼마켓 체인인 삼베리(Samveri, Самбери)에서 신선농산물 매대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산 농산물이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되었다가 최근 교역 재개를 통해 다시 매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나마 가격은 이전 대비 30% 가량 상승한 상태이며 품질 역시도 형편없어, 부족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과거에 수입해놓고 재고로 쌓여있던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블라디보스톡 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스포르피브나야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많은 농산물 매장이 임시로 문을 닫거나 중국산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지역 농산물로만 매대를 운영하는 등 위축된 분위기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시적으로 중국과의 물적 교류를 중단했고 이로 인하여 오이, 토마토, 호박, 가지, 고추, 파프리카 등 채소 가격이 30% 가량 상승했다. 계속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서는, 제품마다 30일 내에 30% 이상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품질이 좋은 제품들은 소포장으로 더 비싼 값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

### | 코로나19 관련 러시아 정부의 대응 |

공시 날짜	내 용	비 고
2020. 1.24	중국과의 국경지역 검문 강화	통관 지연 등 문제 발생
2020. 1.28	중국과의 무역 일시 중단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출입 일시 중단
2020. 1.31	산업 무역부에서 채소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	실제 채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 오이, 호박, 고추 등 소매가격 인상
2020. 2.1	중국행 항공편 운항 중단	러시아 국적이 운항 중단
	중국행 전세기 항공 운항 시작	중국 우한지역 체류 러시아인, 러시아로 대피
2020. 2.2	중국 관광객 러시아 입국 금지	
	중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중단	
	중국인을 위한 격리시설 오픈(3곳)	러시아내 거주 허가된 중국인들 14일간 구금
2020. 2.3	중국과의 국경 통관 재개	극동지역 채소류 공급부족 및 이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재개
	중국 철도 운송 중단	
2020. 2.14	중국행 전세기 항공 운항 종료	
2020. 2.20	중국인 일시적 러시아 입국 금지령 발표	



2019년 10월 중국시장



2020년 2월 중국시장(일부폐쇄)

| 2019년 vs. 2020년 파프리카, 애호박 가격 비교 |



2019년 10월  
파프리카 가격/199.99rub

2020년 2월  
파프리카 가격/249.99rub



2019년 10월  
애호박 가격/ 54.99rub

2020년 2월  
애호박 가격/189.9rub

**물량부족으로 통관 재개했지만 부족현상 여전**

현지 대형체인들은 제품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스라엘,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산물로 중국농산물을 대체하고 있는데, 모스크바를 통해 항공으로 운송해야하는 물류비용이 포함되므로 비싼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공급부족 및 이로 인한 가격급등으로 러시아 정부는

결국, 2월 3일자로 중국산 농산물의 국경 통관을 재개했다. 임시로 러시아 국적의 기사가 중국 국경을 넘어가 트럭에 중국산 농산물을 싣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했으며, 일주일간 중국으로부터 1,350톤(트럭 51대)의 화물이 반입되었다. 현재는 매일 100톤 물량의 화물이 투입되고 있으나 생산보다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중간가격대의  
고품질 이미지로 승부해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을 조달하던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농산물 부족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는 한국산 농산물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재배지 검역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한 농가가 현재 거의 없는 점, 현지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중국산에 비해 고가인 한국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중상류층의 숫자가 제한적인 점, 열악한 물류 여건으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사할린의 3대 거점도시 이외에는 수출이 어려운 점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활용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고품질 이미지를 현지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중국산에 비해 고가이나 유럽 및 일본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간가격의 제품으로 적절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